

No.20160928-001

제목: Silent Breath

저자: 미나미 쿄코

페이지수: 325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08일



<내용소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통해, 삶의 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논하는 의료 미스터리 소설

미토 린코, 37세 대학병원 종합진료과 의사. 그녀는 어중이떠중이 같은 종합진료과를 벗어날 기회만을 노려왔지만 순환근무 기회가 아닌 좌천 명령이 내려진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방문 클리닉에서 일하게 된 린코는 점점 무력감에 시달린다. 의사의 소명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지만 절대 나을 수 없는 이 곳 환자들에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본문은 총 6편의 이야기, 린코가 방문 클리닉에서 알게 되는 여섯 환자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1편에는 연명 치료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유방암 말기인 45세 여성과 그녀의 집에 자주 드나들지만 가족들도 누군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난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야 그의 정체와 환자가 준비해왔던 일이 밝혀진다. 2편의 주인공은 유전성 근육병증을 앓는 남성이다. 이제 겨우 22살,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지만 모친은 그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원봉사자를 모으며 즐겁고 긍정적으로 지냈지만 정작 죽는 날 밤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이외에도 호스를 통해 위에 직접 음식물을 공급해야 할 만큼 노쇠한 80대 할머니와 아들, 산에 버려져 있었던 말 못하는 소녀와 그 아이를 거둬 키우는 노부부, 소화기암의 권위자였지만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채 수상한 행보를 보이는 의사에 이어 마지막에는 8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린코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꼼꼼하고 성실했던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한 유지를 남겨두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진 린코는 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내린 결단이 린코와 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게 만든다.

이처럼 각 에피소드에는 환자 본인과 주변 인물들에 관한 미스터리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죽음에 관한 수수께끼가 풀리며 미처 몰랐던 관계 혹은 생이 끝나기 전에 얻고 싶었던 것들이 밝혀진다. 그리고 린코도 점차 변해간다. 인생 최후의 나날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의료'의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는다.

작가는 종말기 전문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역의사이며, 제목 <Silent Breath>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미지가 담은 단어다. 자신의 직업 의식과 경험을 태도로 현대 사회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의료행위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 고찰해 볼 주제를 담은 소설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Breath 1. Spiritual Pain

Breath 2. Inovan

Breath 3. Embalming

Breath 4. Keshan disease

Breath 5. Long time survivor

Breath 6. Silent Breath

에필로그

<저자소개>

미나미 쿄코

1961년 도쿠시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여자대학을 졸업하였다.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도카이대학 의학부에 편입하였고, 졸업 후 도내 대학병원의 노년 내과 등을 거쳐 스페인으로 떠났다. 스위스 의료복지 상조회 고문의사 등을 맡았으며 귀국 후에는 도내의 종말기 의료전문병원에서 내과의로 근무 중이다. 본 책이 소설가 데뷔작이다.

No.20160928-002

제목: 여름의 방주

저자: 우미네코자와 메론

페이지수: 261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6월 30일



<내용소개>

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남자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청춘 소설

가끔, 호불호를 떠나서 우선 주위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소설에서는 조금 더 과장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매료되는 마성의 캐릭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작품의 중심인물인 '쿠로사카 세이'처럼 말이다.

주인공인 '미나즈키 리쿠'는 세토나이카이에 위치한 한 섬에서 홀로 살며 근방의 섬들을 한 데 묶어 개발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명소를 발굴, 안내하는 가이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어느 날, 그는 항구에서 이어지는 길목에서 얼핏 보면 여성으로 착각할 만한 남자와 마주친다. 리쿠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상대방은 반갑게 인사한다. 알고 보니 그는 어릴 때 이 섬에서 같이 살았던, 친하게 지냈던 후배 쿠로사카 세이였다. 리쿠는 10년 만에 섬에 돌아온 세이와 만나며 예전의 괴로운 기억과 비밀스러운 욕망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과거의 짙막한 신문 기사 하나가 실려 있다. 마을 교회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나 목사인 토오노미야와 그의 아들 코우키, 신자였던 리쿠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코우키는 리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리쿠는 그 날 친구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고 말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이를 방화 용의자로 여기고 언젠가 그와 만날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제목과 동명의 프롤로그 외에 4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연작 소설집이다. 리쿠의 기억에 묻혀 있던 과거 사건을 회상하며 세이를 향한 불분명한 감정이 싹트는 이야기, 세이를 따라서 섬을 나와 도쿄로 따라 온 리쿠가 세이에 대해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 동료와 방문한 비밀 클럽에서 S라는 닉네임으로 일하는 세이에게 빠져들고 스토커처럼 구는 마키무라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퇴폐적이고 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남자 쿠로사카 세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다. 방화 살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등장인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남기는 듯한 여운으로 끝맺는다.

소년에서 성인이 된 두 남자의 과거와 현재, 그들 사이의 오묘한 감정이 스토리를 지배한다. 동성애 요소가 있지만 BL 장르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는 미스터리 요소

이며, 인물들 간의 갈등과 질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청춘 소설이다. 우리 사회에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직업과 성적 취향 등을 '보통의 다수'에 속한 독자들이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그려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목차소개>

여름의 방주 / 물 그림자 밟기 / 여름의 문신 / 살로메가 없는 금요일 / 아이들의 소수

<저자소개>

우미네코자와 메론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닛세이가쿠엔 제3고등학교 졸업 후, 용접공과 호스트 등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DTP디자이너로서 활동 하였으며 스스로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소설화한 《괴짜 라스트 리조트》로 데뷔하였다. 색다른 내용이 입소문을 타면서 열광적 인기를 얻었다. 기타 작품으로는 《싱글벙글 시급 800엔》, 《사랑에 대한 느낌》등이 있다. 문단, 컬쳐, 평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No.20160928-003

제목: 스타워즈로 배우는 <국가·정의·민주주의>

저자: 오카다 토시오

페이지수: 224

장르: 정치

출간일: 2015년 05월 20일



<내용소개>

《스타워즈》《기동전사 건담》 등 유명 SF시리즈를 통해 알기 쉽게 배우는 정치학

불안정한 고용문제, 위축되는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테러와 난민 증가, 강대국의 이권 다툼, 종교적 대립, 인권 침해 등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다. 극도로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일은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대중들은 점점 문제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감정적으로 응하며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 것일까? 정말 정치에 대해 몰라도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런 불안은 이 책의 저자도 갖고 있었다. '오타쿠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오타킹'으로 불리는 오카다 토시오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가이낙스의 설립자로서 수많은 명작을 세상에 선보였다. 또한 1세대 오타쿠로서 오타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그는 정치의 본질을 모르면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다고 말하며, 중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정치학의 기본을 설명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의 의도대로, 본문에서 저자는 유명 SF작품들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정치와 정의의 존재 방식을 논한다. 살펴보면 《건담》은 우주시대 식민지에 사는 이들의 독립전쟁을, 《스타워즈》는 은하제국이라는 악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는 민중의 모습을, 《배트맨》은 국가와 경찰에만 맡겨둘 수 없는 악을 처단하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 정의를 지키는 한 남자를 다룬 이야기다. 정치적 성향이 매우 짙고, 민감한 문제들이 은유적으로 담겨있는 것이다.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는 핵무기로, 미국 코믹스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은 '자경단'으로, 영국의 EU탈퇴를 건담으로 비유하는 부분에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과 상상력이 빛을 발한다. 1966년 로버트 A.하인라인이 발표한 SF소설의 고전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은 지구로부터 독립하려는 달 세계의 투쟁을 다룬 작품으로 과학과 휴머니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걸작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하인라인의 작품을 통해 '자유지상주의'를 설명한다.

저자는 지금의 정치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은 정치평론가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SF작품들이 하나같이 정치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론가들은 그 분야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여 지적 태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치에 재미를 알게 되

는 순간, 정치를 곧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혼란스럽고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치의 본질과 문제 해결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선사할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정치우화로서의 〈스타워즈〉

제 2장: 도대체 정치란 무엇일까?

제 3장: 슈퍼 히어로 상으로 보는 미국이라는 국가

제 4장: 영국의 EU이탈을 건담으로 비유하면?

제 5장: 하인라인으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배운다

<저자소개>

오카다 토시오

사회평론가. 1958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1984년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가이낙스를 창업하고 이후 도쿄대학 비상근 강사로 취임해 작가 및 평론가 활동을 시작한다. 릿쿄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강사, 오사카예술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2010년에 〈오타킹ex〉(현: FREEex)를 세웠다. 레코딩 다이어트를 제창한 《언제까지나 돼지라고 생각하지 마》가 50만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여러 분야에 걸친 저작의 누계 판매부수는 250만부를 넘었다.

No.20160928-004

제목: 어른을 위한 교양 세계사 강의 1&2

저자: 데구치 하루아키

페이지수: (1권) 384, (2권) 416

장르: 역사, 교양

출간일: 2016년 01월 18일



<내용소개>

인류의 문자 발명 이후 5000년의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재미 있게 전한다

모든 것에는 지나온 흔적이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시간의 흔적을 우리는 '역사'라 부른다. 한 사람의 역사는 '인생'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여러 사람들이 사는 지역, 국가, 대륙에도 저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다. 그것들을 한데 뭉친 것이 '세계사'다. 과거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가, 무엇을 얻었고 잃었는가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성하고 교훈을 얻은 뒤 좋은 본보기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 눈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나 양이 무척 방대하고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알지만 공부할 마음은 선뜻 들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저자는 일본 라이프넷 생명보험의 CEO지만 역사에 대한 깊은 조예를 자랑하며 관련 강의도 맡고 있다. 역사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되도록 정확한 내용을 사람들이 흥미를 갖도록 전해왔다. 《전 세계사 강의》는 각각 400페이지 분량의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시점부터 약 5000년의 세월을 하나의 커다란 강으로 인식하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나간다.

1권은 BC3000년부터 AD1400년에 이르는 고대·중세 시대 편이다. 최초의 문명과 고대 왕국들, 청동기 시대의 붕괴, 고대 제국 시대의 도래, 각 지역에서 벌어진 삶에 대한 열망과 학문의 발전, 종교들의 등장과 확산, 이슬람 제국의 등장 및 분열, 중세시대의 번성, 페스트 발생, 오스만 제국의 급 부상 등 역사상의 주된 사건과 핵심 세력의 탄생 및 멸망 등을 다룬다.

2권은 AD1401년부터 AD2000년까지 근세·근현대 시대 편이다. 1권에 비해 시간은 짧지만 그 몇 배나 되는 사건과 변혁들이 일어났다. 신대륙 시대, 아시아에서는 4대 제국이 맹위를 떨치고 유럽에는 루이 14세가 군림했던 시기, 산업 혁명과 프랑스 혁명, 세계의 패권이 유럽으로 넘어간 시기, 제 1·2차 세계대전, 냉전과 화해의 시기 등을 해설하였다. 수업 시간에 들어봤던 인물명과 지명이 되살아나며,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의 다양한 지식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다른 문화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시작된 또 다른 천 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마무리 한다.

이 타이틀은 인류의 5000년 역사를 한 번에 파악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예비 지식이 있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교과서나 시대별 세계지도를 참고하는 것도 이 책을 제대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교양다운 교양을 쌓고 싶은 독자라면 시간을 들여 읽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1권] 고대·중세 편

전사: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기까지

제 1부: 제1천년기 ~ 제2천년기 (BC3000~BC1001)

제 2부: 제3천년기 (BC1000~BC1)

제 3부: 제4천년기 (AD원년~1000)

제 4부: 제5천년기 전반 (1001~1400)

[2권] 근세·근현대 편

제 4부: 제5천년기 전반 (1401~1500)

제 5부: 제5천년기 후반 (1501~2000)

종장: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로 시작된 제6천년기

<저자소개>.

데구치 하루아키

라이프넷 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 겸 CEO. 1948년 미에 현에서 태어났으며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72년, 일본생명보험상호회사에 입사하여 기획부와 재무기획부에서 경영기획을 담당하는 동시에, 생명보험협회의 초대 재무기획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제도개혁·보험업법 개정에 관련된 일을 하였다. 런던 현지 법인 사장, 국제업무부장 등을 거쳐 2006년에 퇴직하고 라이프넷 기획주식회사(2년 뒤, 현 사명으로 변경)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013년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여행과 독서를 사랑하여 이제까지 방문한 도시만 해도 1200곳 이상, 읽은 책은 1만 권을 넘는다. 역사에 조예가 깊어 교토대학의 <국제인의 글로벌 리더십> 특별 강의에서 역사 강좌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생명보험입문》, 《직구승부하는 회사》, 《생명보험과 잘 지내는 법》, 《일에 효과적인 교양으로서의 <세계사>》, 《<일하는 방식>의 교과서》, 《인생을 재미 있게 하는 진짜 교양》, 《일본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등이 있다.

No.20160928-005

제목: 2025년, 고령자가 난민이 되는 날

저자: 오구로 카즈마사

페이지수: 256

장르: 사회

출간일: 2016년 09월 09일



<내용소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신개념 도시 조성, “케어 컴팩트 시티”를 제시하다

올해 초, 일본의 독거 고령자 숫자는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독사 하는 노인만 연간 수 만 명, 65세 이상 인구 중 적어도 10%가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소비와 경기침체, 저성장, 국가 채무 누적의 악순환이 강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된다.

2025년은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로 들어서는 기점이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질적 향상과 의료/간호 서비스 확충 완료를 과제로 삼았으나 점차 악화되는 국가 재정 상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고령자 주거 장소 및 의료 서비스 부족은 물론 제대로 된 임종 장소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이 타이틀에서는 노후의 재정 문제, 공공정책, 의료 및 간호 제도, 간호 비즈니스, 도시 조성 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본문에서 이들이 솔루션으로 선택한 것은 《케어 컴팩트 시티》다.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 진행 중인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과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컴팩트 시티’를 융합한 것으로, 의료 및 간호 서비스에 마을 조성의 개념을 더한 것이다. 지역포괄 케어란 고령자가 지속적인 돌봄을 요하는 중증의 상태가 되어도 계속 살아온 동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일체화된 의료/간호/예방/생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한편, 컴팩트 시티는 도시의 주요 시설을 밀집 조성하는 도시 계획 방법으로, 교통약자 증가와 근교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친 ‘케어 컴팩트 시티’는 고령자 대상 임대 주택, 입주형 및 방문 간호 시설, 데이 센터, 병원을 한 곳에 집약하여 짓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역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고령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실현되기까지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이 있지만 후기 ‘의료난민’, ‘간호난민’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결론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 때까지는 가능한 행복하고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지내고 싶은 것이 마지막 소망일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에 주어진 골든 타임은 그리 길지 않다.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점으로 해결책을 논하는 이 책을 통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소개>

서문: 누구나 언제까지든 편하게 사는 동네

제 1장: 행복한 노후는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일까

제 2장: 일본의 의료와 간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제 3장: 지역을, 의료와 복지를 누가 ‘경영’하는 것일까

제 4장: 도시 계획은 휴먼 스케일로

제 5장: 지역의 공동체 마인드를 공유한다 - 중요한 규범적 통합

제 6장: ‘케어 컴팩트시티’가 일본을 구한다

<저자소개>

오구로 카즈마사

호세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 1997 년 교토대학 이학부 졸업 후 대장성(재정경제부)에 입성했다. 2003 년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5 년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연구관, 2006 년 사이타마대학 비상근 강사로 일했다. 2008 년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박사 과정 입학했으며 세계평화연구소와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준교수, 호세이대학 경제학부 준교수를 거쳐 2015 년부터 현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2020 년, 일본이 파탄하는 날》, 《일본파탄을 막는 2 가지 플랜》, 《아베노믹스에서도 소비세는 25%를 넘는다》 등이 있다.

No.20160928-006

제목: 무사 집안의 예의 교육 - 아이의 예의범절

저자: 오가사와라 케이쇼사이

페이지수: 228

장르: 교육

출간일: 2016년 09월 15일



<내용소개>

수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가사와라류 예법'에서 예의범절 교육의 힌트를 얻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 친절함과 온화함이 많이 사라졌다. 타인에게 대체 왜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는 빈도도 잦아지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의범절이며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요즘에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굴어 문제의 발단이 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주변 세상에 대한 태도를 처음으로 형성해 나가는 어린 시절이 예의범절을 익히기 위한 최적의 시기다. 물론 주 교육자는 부모가 된다. 저마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므로 이상적인 부모상, 올바른 예의범절 교육법을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대대로 전해 내려온 선인들의 지혜 속에서 꼭 가르쳐야 할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는 있다.

이 책은 일본 오가사와라류 예법 속에서 아이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줄 가르침을 발췌해 전한다. 오가사와라류 예법이란, 약 700년 전 무로마치 막부 초대 쇼군 아시카가 타카우지의 가신이었던 오가사와라 사다무네가 확립한 '무사의 예법'이다. 당시 무사들은 상대와 상황에 맞춰 행동했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원활한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이나 행동 방식의 정도를 익히려면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을 잘 교육 받아야 했다. 무사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조그마한 감정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다가가고 교육하였다. 저자는 수 백 년을 전해져 온 예법의 내용을 통해 예의범절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논한다. 아이를 키우며 부딪히게 되는 문제에 어떻게 그 내용을 적용하며, 아이의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부모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떠한지 이야기한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안일수록 신중히 대응하기, 부모와 자녀 간의 구분,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유도 하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기,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인과 의, 타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일수록 바르게 행동하기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예법서에서 관련 문구를 발췌해 설명하며 독자들의 공감과 깨달음을 이끌어낸다.

저자 역시 오가사와라 가문의 일원이다. 가문의 전서와 자신의 체험담에 기반해 풀어낸 예의범절 교육 및 육아 방식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1년 사계절마다 돌아오는 일본의 주요 행사와 24절기에 얹힌 예의범절도 다루고 있으므로 이웃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재미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아이의 「예의 교육」란 무엇일까

(1. 예의 교육은 마음이다 / 2. 자녀의 주제를 알다 / 3. 무사의 「남자」의 정의 등)

제 2장: 아이의 「마음」을 단련하다

(1. 때에 알맞게 행동한다 / 2. 마음이 모든 것에 선행한다 / 3. 공공 장소에서의 인과 의 등)

제 3장: 사계의 행사를 함께 즐기다

(「경사(행사)」와 「일상」의 구별 - 계절의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의미 등)

<저자소개>

오가사와라 케이쇼사이

도쿄에서 태어났다. 오가사와라 타다무네 전 종가(오가사와라 총령가 제32대, 1996년 사망)의 친누이. 세이신여자학원 졸업 후 영국에서 유학하였다. 부종가를 거쳐 1996년에 오가사와라류 예법 종가로 취임하였다. 700년의 전통을 지닌 오가사와라류 예법의 첫 여성 종가로서 주목 받았다. 문하 지도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강연과 연수를 진행하고 집필활동을 통해 현대 생활에 맞는 예법 보급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남자의 예의범절》, 《남자의 1일 1예의범절》, 《보고 배우는 일본인의 행동》, 《아름다운 일본어 작법》, 《백작가의 관례》, 《일러스트로 이해하는 예의범절 기본 교과서》등 다수가 있다.

No.20160928-007

제목: 끌어당김 보다 “끌어내기”: 당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끌어내기의 법칙”

저자: 쿠스도 후토시

페이지수: 287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5월 27일



<내용소개>

끌어당김의 법칙이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끌어내기의 법칙’

한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서점가를 강타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전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컨셉으로, 여기 등장한 중요 개념 중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국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고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좋고 기쁘고 즐겁게 해 줄 사건들이 눈 앞에 나타난다고 한다. 반면 싫다, 불행하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싫고 불행한 일들이 생겨난다. 여기에 ‘법칙’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크릿》을 읽고 감명받아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한 사람들 중 얼마나 변화를 체험했을까?

이 책의 저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변형한 ‘끌어내기의 법칙’을 주장한다. 돈, 명예, 행복 건강 등 원하는 것이 외부에서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마치 노트나 펜 등 필요한 물건을 많이 넣어뒀다가 필요한 때 필요한 물건을 꺼내 쓰는 서랍과 같다. 동일한 사진을 보고도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 하면 행복한 사람을, 불행한 사람을 찾으라 하면 불행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처럼 관점의 차이가 결과가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며 나부터 변하는 것이 선행 과제가 된다.

책 본문은 총 4개 장으로 되어 있다. 끌어내기의 법칙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한 다음, 말과 어휘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감정을 통제 가능한 자기 편으로 만들면 행동력이 좋아지고, 신체는 릴랙스 시키면서 정신 상태를 하나로 가다듬을 때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돈은 의식하지 않을 때 따라온다는 말도 인상적이다. 즉 입 밖으로 내어 말하고,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냄으로써 잠재력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과 함께 자기 무의식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메서드를 제시하여 따라 해볼 수 있다.

끌어내기의 법칙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부정하거나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

워주고 효과를 극대화 시켜줄 것이다. 저자는 20대에 히키코모리와 우울증을 거쳐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해봤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고 외부 세상만 바뀌어주길 소망했기 때문이었다. 꼭 우울증이 같은 증상이 아니어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 책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목차소개>

제 1장: 끌어내기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 /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 〈행동 방식〉이 아닌 〈생각하는 방식〉을 찾아낸다 등)

제 2장: 입밖에 내다

(모든 트러블을 야기하는 말 / 무의식 중에 쓰던 어미(語尾)를 의식하자 / 예상 밖은 모두 예상 범위 안에 등)

제 3장: 움직이기 시작하다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면 몸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 집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라! / 돈은 기분 좋은 것? 아니면 더러운 것? 등)

제 4장: 찾아 내다

(굿바이!의 법칙 / 좋은 것은 삼키고 나쁜 것은 뱉는다 / 49초 비즈니스 등)

<저자소개>

쿠스도 후토시

198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20대 무렵 일도 연애도 인간관계도 잘 되지 않아서 히키코모리, 니트족, 우울증을 거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런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잠재의식)과 끌어당김의 법칙, 정신세계 등의 모든 사고법을 접하고 '마음'과 '신체' 양쪽으로 접근하며 인생을 호전시키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스스로도 실험대가 되며 인생이 잘 풀려나게 된다. 2012년 자신을 바꿔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싶다고 생각하며 블로그 《세계는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를 시작한다. 블로그 내에서는 '마음' 이야기, 다소 위험한 이야기, 사소하지만 웃음을 주는 이야기, 잠재의식 이야기 등을 하며 독자와 같이 만들어나가는 《지적 엔터테인먼트》를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의 토크쇼에서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웃음을 전하고 있다. 첫 저서인 《무의식은 언제나 옳다》는 5만부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No.20160928-008

제목: 올바른 가계관리

저자: 하야시 아츠무

페이지수: 207

장르: 생활

출간일: 2014년 03월 12일



<내용소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돈은 저절로 모이는 가계 관리 시스템 만들기

매번 연초가 되면 새로운 가계부들이 나온다. 잊지 않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도와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서비스도 속속 등장했다. 내역을 줄줄 적기만 해서는 절약 효과가 없다며, 차별화된 가계부 작성법을 알려주는 서적들도 다수 발간되었다. 이런 코칭 도서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인다는 증거다. 한편으로는 이미 알려진 방법들에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이 타이틀에서 저자는 가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꿀 것을 제안한다. 관리회계 전문가로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해 온 저자는 기업 회계를 '가정'의 영역으로 끌어온다. 사실 기업이나 가정이나 구성원의 공동 목표가 있는 조직이므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

가계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행위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악순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최악의 경우 파산을 인정하고 제3기관의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가정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관리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가계 관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다. 둘째, 유행이나 억측에 휩쓸리지 말고 가치를 제로부터 만들어 높여나간다. 가정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표면적인 숫자 보다는 가치를 고려하며 관리하라는 뜻이다.

1장에서는 가계관리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개념을 바로 세운다. 2장은 노트 메모를 통해 가계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뒤이어 3,4장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관리 불가능한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세분화 된 지출항목 별로 달라지는 관리 원칙과 순서를 익히도록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중·장기 가계 관리 방법도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해설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치와 행복, 돈의 관계를 고찰할 기회를 준다.

가계를 관리하는 목적은 '자신과 가족이 현재도 미래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단순 절약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싶거나 기존 방법에 실망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자기 가정에 딱 맞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 차례의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이 책은 그 수고를 덜어줄 것이다. 저자의 조언을 따라, 한 번 만들어두면 가계가 자동적으로 흑자 지속되는 시스템을 완성해

실행해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 제 1장: 가계관리의 목적
- 제 2장: 가계의 실태를 파악한다
- 제 3장: 예산을 세운다
- 제 4장: 관리할 수 없는 지출을 깊이 재검토한다
- 제 5장: 관리의 순서
- 제 6장: 중장기 가계관리
- 제 7장: 복습 - 가치와 행복과 돈의 관계

<저자소개>

하야시 아츠무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원 교수(관리회계). 외자계 회계사무소와 감사법인을 거쳐 개업하였다. 현재 경영 컨설팅, 회계 시스템 설계 및 도입 지도,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회계학 콘서트1,2》, 《드러커와 회계를 이야기하자》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가계와 회사경영은 목적이 같 으며 돈은 만족도 높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No.20160928-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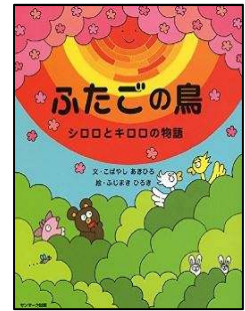
제목: 쌍둥이 새

저자: 코바야시 아키히로(글), 후지마마 히로키(그림)

페이지수: 46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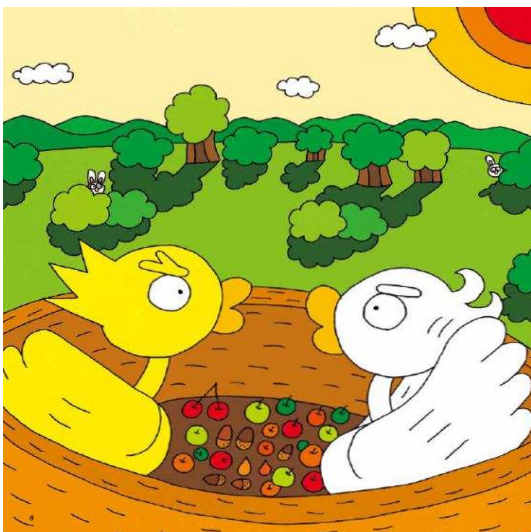
<내용소개>

사이 좋은 쌍둥이 새 '시로로'와 '키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간 옛날, 산 깊숙한 곳에 쌍둥이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로로'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특기인 하얀 새, '키로로'는 앞을 내다보는 천재 황금빛 새로 둘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로로는 키로로를 지키려다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더 이상 날 수 없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날 수 있도록 남은 한 쪽 날개를 키워가며 열심히 연습하지만 역시 무리입니다. 그 때 키로로가 나타나 "우리는 항상 함께"라고 말합니다. 시로로와는 반대쪽 날개를 열심히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쌍둥이는 몸을 포개고 서로 왼쪽과 오른쪽이 되어 함께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구름 한 점 없이 밝고 둥근 달이 뜨는 밤이면, 삼각산 근처를 날아가는 시로로와 키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자는 불치병 때문에 오랜 투병생활을 겪었으며 자신의 아이가 강하게 살아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시로로, 기꺼이 돕는 형제 키로로의 모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교훈과도 이어집니다. 밝고 귀여운 느낌의 일러스트가 가슴 뭉클한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주는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そういえば、シロロは小さいころから、どりよくかだったな。
こどものころは、馬ヤラソンの選手になりたいって、
毎朝はやくおきて、「一日もかかさず」山をひとまわりしてたよな。」
すると、シロロは首を、ゆっくり横にふりました。
「いや、じつは一日だけ練習しなかった日があるんだよ。
その日は、ひょうがふったんだ。」
「ヒョウが?」
「ちっ、ちがうっ。そのヒョウじゃないよ、^{（読み）}家みたいなやつ。
それも、とても大きいやつだった。」
そういながら、^{（読み）}羽を大きく広げたシロロも、いいかえました。

「キロロだって、小さいころから観察をつづけているじゃないか。
^{（読み）}植物のびるはやさ、昆虫の必殺技、動物のなわばり...、
ぜんぶわかってた。
アリジゴクが、後ろにしかすめないことを
覚えていたのは、キロロだけだよ。」
「オレのはただ好きなかだけさ。」
そうつぶやいたキロロは、まんざらでもない顔になりました。



シロロは おかのでっぺんに立ち、翼を見つめます。

「よし飛ぶぞ。また 空にかえるんだ!」
そういつて 翼を広げジャンプしました。

その大きくなった翼を おもいきり はばたかせるシロロ。

体は ゆっくりとちゆうにうきはじめ、
弱は さらにスピードをましていきます。
ついにシロロの体は 上をむきはじめました。

「やったわ!」
「すごいよお! シロロ。」
「飛んでる、飛んでるわ、くまっち。」
「ああ、たしかに飛んでるよお、バンビーナ。」

33

この夜は 曇ひとつない まん月で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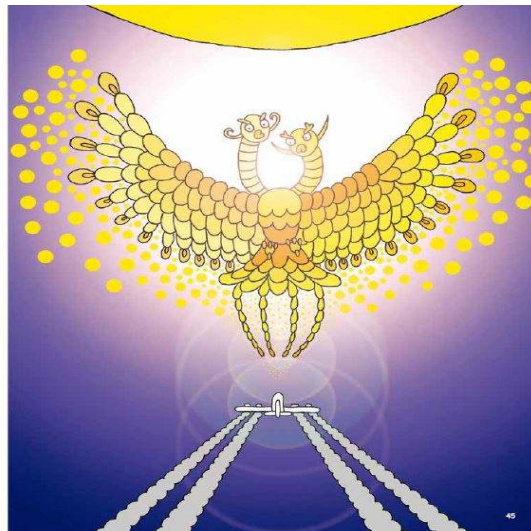
鳥は 夜になるとくらくて 目が見えなくなるのに、
その日の夜は 月のおかげですべても明るく、
ずっと 飛びつづ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ふたごの鳥が ジャンボジェットより高くまいあがり、
やけに明るいう月に ちかづいたとき、
まん月は キロロの美しい体を あざやかにかがやかせ、
シロロの白い体を 黄金色にたらしめたのです。

シロロとキロロは 毎日、いつもいっしょに飛んでいます。
その日から ずっとひとつになって飛びつづけています。

そして、曇ひとつない まん月の夜は
トンガリ山を飛びだして、 空高く とおでをします。

44



45

<저자소개>

코바야시 아키히로

1972 년생. 불치병과 싸워나가는 투병가. 십 수년 전, 해외 뇌사장기기식을 받아서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2013 년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저서로는 《힘들 때 읽는 책》,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환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

후지마마 히로키

1975 년생. 일러스트레이터. 이벤트에 참가하며 개인전을 열고 있다. 유·소년기에 큰 병을 앓아 장기 입원생활을 했다. 그 경험 때문에 아픈 아이들을 웃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태양'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주로 그린다. .

No.20160928-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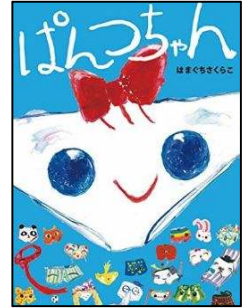
제목: 팬티

저자: 하마구치 사쿠라코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7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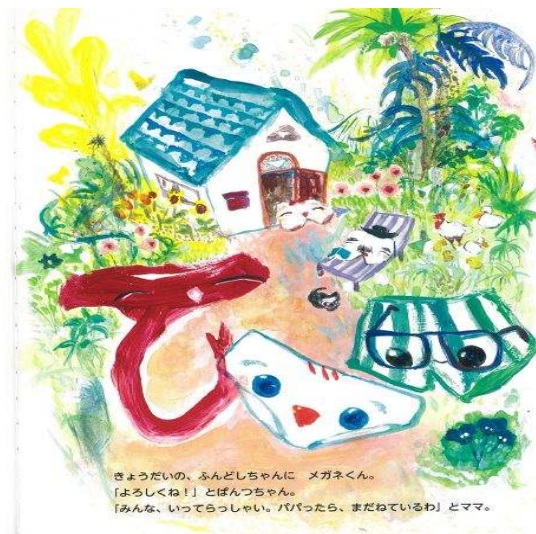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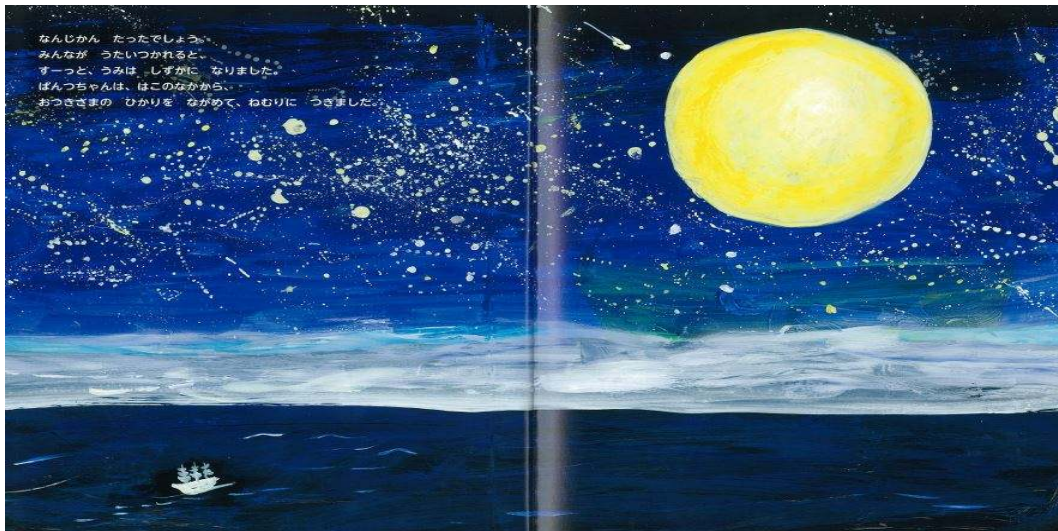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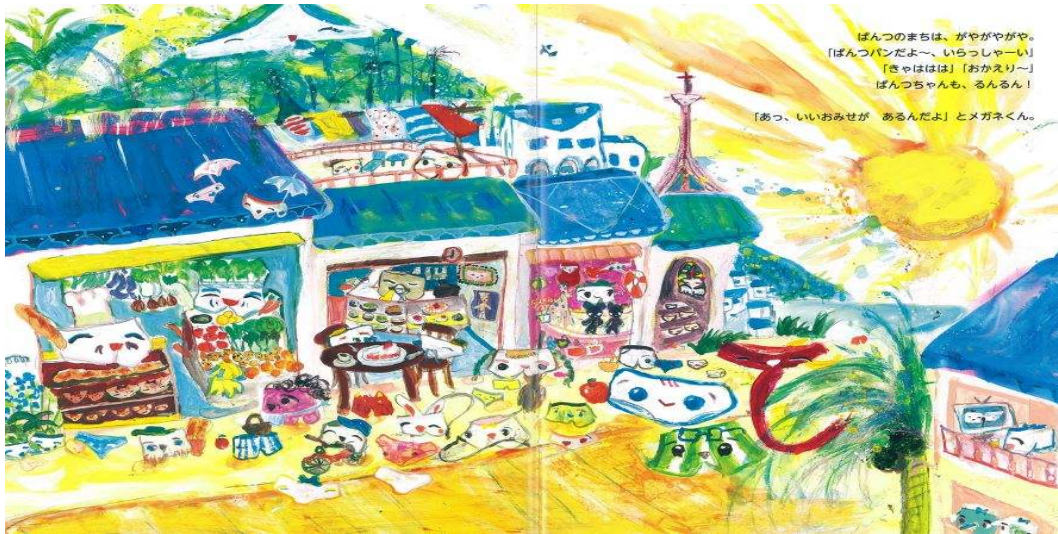
다양한 팬티들이 모여 사는 상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팬티들이 모여 사는 섬에서 태어난 주인공. 훌륭한 팬티가 되어 인간을 지켜주고자 학교에 가서 긴 수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잔뜩 멋을 낸 다양한 종류의 팬티들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천 가게에 들러 엄마팬티에게 달린 것과 똑 닮은 예쁜 리본을 만들어 붙입니다. 꽃이 가득 핀 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모두 모여 음악회를 여는 가을,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겨울을 지내는 동안 주인공은 인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온 봄, 드디어 주인공을 포함한 수많은 팬티들이 인간을 만나러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험한 파도를 넘어 고요한 밤바다를 지나 마침내 배가 도착한 곳, 주인공이 담긴 상자는 인간 엄마의 손을 거쳐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팬티는 무사히 아이에게 입혀집니다.

이 그림책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속옷을 의인화하여, 태어나 자라고 모험을 거쳐 인간의 손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선한 스토리가 컬러풀한 그림체와 잘 어우러져 재미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하마구치 사쿠라코

화가. 1981년 교토에서 태어났으며 교토사가미술단기대학 혼합 표현 코스를 졸업하였다. 2004년 "GEISAI5" 금상, 2005년 미술출판사 《미즈에》상 그림책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수 차례 개인전 및 그룹 전을 개최하였다. 라이브페인팅, 워크숍, 그림책 제작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